

동남권 신공항 10일 타당성 용역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용역기관을 결정하는 등 공항 건설 일정에 탄력이 붙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5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 “오는 10일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발주기로 결정했다”며 “수요 측면에서의 타당성 여부를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 용역은 여객·화물 수요, 물류 비용, 기존 항공시설 용량 등을 중심으로 미래 항공 여객수요를 폭넓게 조사한다. 기간은 최장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낸 후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통해 신공항 건설에 대한 구체적 소요 예산과 입지를 결정할 본 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에 이은 제2허브공항이자 국토 동남권 중추 공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5개 광역자치단체 공항담당과 대구경북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다음주 대구에서 모임을 갖고 신공항 건설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박재일기자